제35권 51호 | 주후 2024년 12월 22일

2024년 표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4:2

교회소식

[예배 및 행사]

-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올 한해 모두 성경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2/29)까지 | 요한계시록 16장
- 성탄전야축제 | 오늘 오후찬양예배시. 구역별 가족 발표회로 진행됩니다.
  (구역별로 가족이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축하예배 | 12월 25일(수) 오전 11시, 온가족예배로 드립니다.
  (대표기도: 김영덕 장로, 안내: 신세나,유재희 권사, 헌금위원: 예배 참석자 중)
-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화), 밤11시 본당

[모임 및 안내]

- 공동의회 | 다음 주일(29일) 주일오후찬양예배 후 본당
- 12월 교회 청소 담당 | 5·6구역(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오늘 주일 식사봉사 | 마리아·마르다 여전도회 / 다음 주일 식사봉사 | 남전도회
-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 간석시장 공영주차장(간석동 37-109번지)이 신설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적극 활용바랍니다.

[강단꽃헌물]

- 게시판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중보기도]

- 고3 수험생, 입시, 취업 준비생을 위해
- 질병 중에 있는 교우를 위해 | 이준량 성도(새인천요양원)
- 해외 유학 중인 청년들을 위해 | 박지은, 윤석원
- 새로 등록한 새가족을 위해

2024-01 김민주 학생 | 서하율 학생 전도	2024-03 김재은 자매 | 유재희 권사 전도
2024-02 고세이 학생 | 서하람 학생 전도	2024-04 최은선 성도 | 유재희 권사 전도(6구역)

- 우리가 돕는 선교지들을 위해
  - 해외 | 김영덕(에콰도르), 정문수/김명자(말라위)
  - 국내 | 큰기쁨교회(성남), 이순복(국내)

※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서경준
원로목사	김대규
은퇴장로	이영재
시무장로	나석규 김영덕 김진영
전 도 사	이바울
반 주 자	김성숙 오미양

예배시간

주 일 예 배	오전11:00(주일)
찬 양 예 배	오후2:00(주일)
수 요 예 배	오후7:30(수요일)
금요기도회	오후9:00(금요일)
중 고 등 부	오후2:00(주일)

온라인예배는 유튜브에서
"인천성지교회"를 검색하세요

http://www.sj.or.kr

지난주일설교

서경준 목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롬 8:35~39)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랑은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끊으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등등의 것들은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하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히려 이러한 환난을 통해 더욱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박해란 항상 신앙적인 이유들 때문에 가해지는 핍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마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더 많은 박해를 받을 수 록 더 확실히 구원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근과 적신 이라는 말은,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사소한 없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험은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위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가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칼은, 죽음과 전쟁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죽던지 살던지, 늘 하나님의 사랑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이라면 좋겠지만 사단과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의 훼방들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던지, 깊은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든지, 모든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 구원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축복받은 성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지교회
담임목사 서경준
인천시 남동구 간석로 66번길 25
대표전화 439-6157
팩스 437-6150
목양실 439-6150

주일오전예배 오전11:00

인도 : 서경준 목사

예배의 부름

- 예배의 부름 ····· 성 가 대
- 성 시 기 원 ····· 인 도 자
- 찬 송 ····· 새찬송가 105장 ····· 다 같 이
- 성 시 교 독 ····· 117번 구주강림(3) ·····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대 표 기 도 ····· 김연원 안수집사

교제와 나눔

광 고 ····· 인 도 자

새가족환영 ····· 인 도 자

말씀의 선포

성 경 봉 독 ····· 로마서 9장 1~5절(신251P) ····· 인 도 자

특 별 찬 양 ····· 다 와서 경배해 ····· 임마누엘 성가대

말 씀 선 포 ·····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 서경준 목사

결단 찬양

감사의 응답

봉 헌 ····· 새찬송가 500장 ····· 헌 금 위 원

- 찬 송 ····· 아버지의 사랑으로 ····· 다 같 이
- 축 도 ····· 서경준 목사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예배위원안내

(예배위원은 예배시간 20분전에 미리 나와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안내위원	주일오전예배 | 신세나·유재희 권사, 박용호 안수집사
다음주 헌금위원	주일오전예배 | 현장 예배 참석자 중
다음주 기도	주일오전예배 | 김진영 장로

성탄전야축제 오후2:00

사회 : 이바울 전도사

구역별 가족 발표회

수요저녁예배 오후7:30

금주 수요예배는
성탄축하예배(오전11시)
온가족예배로 대체합니다.

새벽기도회 오전5:00

인도 : 서경준 목사

사도행전 강해

향기로운 예물 드리신 분

(온라인 헌금 12월 15일 12시까지)

십 일 조	김가미 김대규 김영덕 김정갑 박용호 박점순 유재희 이미정 이영재
감 사 (일천번제)	김달환 김대규 서하율,서하람 유미자 이바울,김아름 이영재 이희영,이희선 허은경 황의래
주 정 (온라인)	강민영 강현욱 권순남 김가미 김경숙 김규연 김대규 김무겸 김미자 김성숙 김아름 김영덕 김영만 김영순 김윤옥 김의연 김진 김진영 김태연 김희복 김희숙 문분예 문인숙 박명숙 박영규 박용호,신세나 박점순 박현명 배정원 서경준 서명옥 서하람 서하율 성창순 송대성 양성모 양진석 양치호 유미자 유완자 유재희 윤남숙 이바울 이봉석 이영자 이영표 이옥자 이은재 이종화 이주은 이진수 이충구 이희선 이희영 전계문 조순자 진광희 최경옥 최다솔 최현미 최혜숙 한용운 허은경 황예랑 황의래
선 교	김대규 박점순 성창순
차 량	김대규 박점순 성창순
건 축	김대규 박점순 성창순
성 미	공예분 김성숙 김옥순 김윤옥 김희복 유미자 이봉석 이영자 진광희 최태순 황의래 장향미

온라인 헌금

(입금자명에 이름과 헌금종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헌금-홍길동주정

계좌번호 | 신협 135-000-021527 / 예금주 | 성지교회